



오 룩 도 행 복 칼 럼

조영주
남구청 생활보장과

올해도 여지없이 동그런 보름달이 가을하늘에 무심하게 떠오른다. 모자라지도 넘치지도 않고 딱 자기 그릇만큼만 채워내는 보름달. 그 속에 동그란 눈과 동그란 입술을 한 얼굴 하나 단단히 박혀있다.

공직생활 중에 기억나는 선배 한명을 꼽으라면 나는 주저없이 그녀를 지목할 것이다. 강경옥. 1990년도에 주민등록업무를 한 직원이라던 누구라도 그녀를 기억하리라. 겉여디니는 법전. 주민등록 ‘질답은행’, 철두철미한 업무처리. 누가 무슨 질문을 해도 막힘이 없었던 그녀의 강단있는 업무처리 방식 때문에 혹자는 무서운 선배로, 혹자는 멋진 멘토로 기억할 것이다. 1984년 지방행정서기보로 공직에 발을 디딘 그녀는 2012년 원치 않은 질병으로 명예퇴직하기까지 공직자로서 놀라운 열정과 성과를 보여주었다.

그가 일군 성과 중에서 가장 눈부신 대목은 유엔기념공원(당시 유엔묘지) 관련 사업이다. 당시만 해도 지역발전의 걸림돌 정도로

치부되던 ‘유엔묘지’의 무한한 가치가 그녀의 밝은 눈에 들어왔다. 1998년 기획실대 근무하면서 이현세 만화가를 섭외하여 유엔 참전국 16개국 병사들을 캐릭터한 ‘트루피(Troopy)’를 만들고 6.25의 비극을 다룬 국내 첫 애니메이션 ‘목각병정 이야기’와 다큐멘터리 ‘THE MEMORY-한국전쟁에 대한 기억’을 제작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했다. 그의 영혼이 스며든 작품들은 20년이 흐른 지금 봐도 손색없는 멋진 ‘굿즈(상품)’다.

업무에서 늘 한걸음 앞선 그였지만 사람에 관해서는 한없이 느리고 파스했다. 2004년 감만2동 사무장으로 일하면서 지역주민과 직원들의 마음을 모아 용당동 새빛기독교보육원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했는데, 필자 역시 그 인연으로 2006년부터 8년간 그녀와 매주 목욕봉사를 했다. 정신없이 아이들을 씻겨내고, 머리를 말리고, 시원한 요구르트 하나 마실 때면 세상 행복 다 가진 것만 같았다. 목욕탕에서도 아이들은 언제나 그녀를 졸졸 따

라 다녔다. 아이들에게 그녀는 엄마였고, 행복지킴이였다. 그녀가 떠난 지금도 동네 어느 목욕탕에서 그녀를 닮은 직원들이 봉사활동을 이어오고 있으니 이 또한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즈음 그녀는 유방암 발병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으나, 삶에 대한 힘찬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그렇게 5년의 시간이 흐른 2009년, 철저한 자기관리와 식이요법으로 유방암 완치판정을 받았으며, 목욕봉사로 인연이 닿은 직원들이 함께 모여 그녀의 ‘서울대(병원) 졸업’을 축하해주었다. 그해 7월 주민지원과 서비스연계담당으로 발령받은 그녀는 언제 아팠느냐 듯 지역사회 자원개발과 이웃나눔사업 업무를 열정적으로 이끌어갔다.

2012년 다른 부위에 암이 재발하였다는 진단을 받기 전까지 그녀는 후배 직원들이 따라가기 벅찰 만큼 열정적으로 업무를 추진했다. 병세 악화로 급박하게 2차 수술이 진행

되었고, 3개월의 치료기간 중에도 건강하게 복귀해서 후배들과 일하고 싶다고 임버릇처럼 말하곤 했다. 약속대로 3개월 만에 업무에 복귀했으나 2012년 10월 그녀는 결국 명예퇴직을 선택해야만 했다. 퇴직 후에도 평화지킴이봉사대와 새빛기독교보육원 봉사활동을 활발히 이어갔으며, 간간히 후배들을 불러 따끈한 밥 한끼 나누는 일도 잊지 않았다. 그렇게 우리 곁에 오래도록 함께 할 줄 알았던 그녀는 2016년 1월 몸서리쳐 추운 어느 겨울날 곧 태어날 손녀의 얼굴도 보지 못하고 57년의 생을 마무리 했다.

일을 할 때면 두 사람 묶은 너끈히 해지울 만큼 추진력과 카리스마가 넘쳤으나 사석에서 만나면 그녀는 천성 여자였다. 자신의 손으로 고슬고슬한 밥 한 끼 대접하는 것을 무척이나 좋아해 ‘그녀의 집밥을 안 먹어 본 사람은 있되, 한 번만 먹어본 이는 없을 거’란 우스개 말도 몰았다. 어느 해 겨울인가 모친이 아파 감장은 엄두조차 못내던 후



강경옥님이 2005년 10월 반려견 간돌이와 양산 배내골 계곡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다.

배에게, 아파트 주차장에 들러 김장박스 하나를 무심히 안겨주고 돌아서면 그녀의 뒷모습을 생생히 기억한다. 사람은 살다간 흔적이 아름다워야 그리워지는 법이다. 나눔과 행복지킴이로 평생을 살다간 그녀야말로 진짜 아름다운 인생이 아니었을까.

용호동에 봉수대가 있었다?

곽태욱의 바람고개 이야기

오해야항 봉수대

용호동에 오해야항(吾海岬項) 봉수대가 있었다고 한다. 얼핏 들으면 용호만 포구에 설치된 봉수대인가 싶다. 하지만 그 뜻은 ‘외양간 길목의 봉수대’라고 한다. 외양간은 말을 기르는 목장이다.

조선시대 부산 지역 목마장은 지금의 영도구인 절영도, 남구 우암동 일대의 석포, 사하구 괴정동 일대의 오해야항 세 군데로 전해진다. 각 목마장에 대한 규모와 위치는 조선 현종 때 허목(許穆)이 편찬한 『목장지도(牧場地圖)』, 1663』의 「동래부 목장지도」에 나타나고 있다. 그러면 ‘길목’이 어디인지만 알면 논란이 많은 오해야항 봉수대 위치는 분명해진다. 여러 문헌 중 『신증동국여지승람(1530)』에서 오해야항 봉수대는 동쪽으로 황령산을, 서쪽으로 김해부 성화례산(金海府 省火禮山)을 각각 응하고 있다고 적고 있다. 김해부 성화례산은 오늘날의 부산시 강서구 생곡동 봉화산을 일컫는다. 시(市)의 부산향토문화백과에서도 오해야항 봉수대는 용호동보다 감전동·괴정동 일대에 설치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설명을 하고 있다.

그런데 용호동 신선대 동방 산상에 토성을 쌓아 오해야항 봉수대를 신선했다는 기록이 동국여지승람(성종 12년, 1481년)에 있다는 구전이 농바우(농바위)라는 인터넷 블로그에 소개되고 있다. 신선대 동방은 이기대를 품고 있는 장자산 정상을 가리킨다. 봉수대 아궁이는 서북방향인 금련산 쪽으로 나있었

고, 높이는 대략 1.8m 이상되는 원형 형태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태평양전장이 한창이던 1942년 4월 이후 일제는 미군 공습에 대비한 항공기 탐조등을 발전기와 함께 설치하면서 이곳 봉수대가 파괴되었다는 것이다. 남구 향토사에도 오해야항 봉수대는 역시 용호동 설치설을 주장하고 있다. 그 위치는 오류도 바로 서쪽 반도라고 하고 있다. 신선대 일대를 가리키는 것이다.

그 근거는 여러 문헌 중 『대동여지도(1861)』를 대표적으로 든다. 신빙성을 더하는 것은 석포 목마장이 엮여지면 코 달을 곳에 있었다는 점이다. 그래서 봉수대 유구를 찾아보니 신선대 뒷산 신통산(봉오리산) 정상상의 무너진 큰 돌탑 정도이다. 이 돌탑을 봉수대로 불렀을리 만무하다. 그렇다면 구전이긴 해도 장자산의 ‘오해야항 봉수대’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먼저 오해야항 목마장에 대하여 『경상도속찬지리지(1469)』에는 내성·중성·외성(內城, 中城, 外城)의 3중으로 축조되었다고 하고 있다. 이 중에서 중성은 주회(周廻, 돌레)만 해도 2만 3,564m에 이른다는 것이다. 이 규모는 당시의 동래부 남단 전 지역이 목마장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닌 면적이다.

그래서 용호동 지역 봉수대를 석포 마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해야항’이라 명명했던 것은 아니었을까. 그게 아니면 지방 수령의 재량에 의해 설치한 권설봉수(權設烽燧)였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 그랬다면 용호동 봉수대는 ‘장자산 연대(煙臺)’라는 이름으로 전해졌는지도 모른다.

소설가·향토사연구가

알아두면 쓸데있는 신비한 강연

‘알쓸신강(알아두면 쓸데 있는 신비한 강연)’ 이번 호에는 지난 9월 21일 남구청 대강당에서 열린 ‘청춘 희망 콘서트’ 공부의 신 ‘강성태 공신닷컴 대표’의 ‘미쳐야 공부다’ 강연을 소개합니다.

공부, 왕도는 없되 지름길은 있다

청춘희망콘서트 ‘공부의 신’ 강성태 대표의 ‘미쳐야 공부다’

오늘 했던 공부는 우리 머릿속에 얼마나 남아 있을까. 실험에 따르면 하루 지나면 절반 정도가 남고 사흘이 지나면 10%도 남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복습이 필요하다. 그럼 효율적인 복습 방법은 무엇일까. 바로 공부랑을 줄여나가는 복습법이다. 책 한권을 공부할 내용으로, 시험범위로 줄여나가고 그 중에서도 부족한 부분을 주려내 공부한다. 마찬가지로 부족한 부분을 줄여나가며 공부하다보면 가장 취약한 부분을 명확하게 알게 돼 이를 개선할 수 있게 된다.

구체적인 공부 방법 몇 가지를 소개하겠다. 첫째, 가리면서 테스트하기다. 예를 들어 영어 공부를 할 때 읽거나 쓰는 방식보다 가리면서 테스트하는 방식으로 하면 같은 시간을 공부해도 성적이 배 이상 차이가 난다. 두번째 방법은 스톱워치 공부법이다. 공부를 시작할 때 스톱워치 시작버튼을 누르면 쫓기듯, 마치 시험을 치듯 집중해서 공부를 할 수 있게 된다. 세 번째 방법은 코벌식 노트필기법이다. 노트 왼쪽에 3~4cm 간격의 줄을 그어놓고 줄을 기준으로 오른쪽 넓은 공간에 필기를 한다. 왼쪽 공간에는 오른쪽 공간의 필기 내용이 담이 되는 질문을 만들어서 쓴다. 그렇게 되면 시험공부를 할 때, 넓은 영역을 가리면 질문만 남게 되어 테스트하는 방식으로 공부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습관이다. 습관처럼 반복되는 일과에 새로 만들고자 하는 습관을 붙이면 습관화하기 쉽다. 실제 한 중학생이 백지복습(하루에 배운 내용을 백지에 써보는 복습법) 습관화를 위해 학교에서 돌아오자마자 복습을 반복했다. 그리고 가득 채운 백지를 집안에서도 자주 가는 공간에 붙여놓고 눈에 띄게 만들었다. 시·공간을 꼭 메운 것이다. 그렇게 66일 정도가 지나자 습관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는

데 백지에 쓴 내용을 누군가에게 설명하는 것이다. 설명을 할 때 듣고 있는 사람이 칭찬을 해주면 더욱 효과적이다.

지금부터는 공부법보다 더욱 중요한 나의 이야기를 풀어보고자 한다. 꿈에 대한 이야기이다.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꿈이 생겼다. 단 하루도 잊은 적이 없는 꿈이다. ‘빈부와 지역에 상관없이 대한민국의 모든 학생들에게 공신 멘토 한 명씩을 만들어 주겠다.’

꿈을 놓치고 싶지 않아 눈이 닿는 모든 곳에 이 문장을 써서 붙였다. 강의, 멘토링, 인터뷰할 때에도 한 번 빠짐없이 이 문장을 말했다. 심지어는 알람을 맞춰 정해진 시간에 매일 외치고 있다.

학생들에게 멘토의 존재는 굉장히 중요하다. 돈이 없고, 공부를 못하고, 학교에서 퇴학을 당할지라도 세상에서 단 한명, 자신의 편을 들어줄 사람이 있다는 것은 큰 힘이 된다. 소중한 사람이라는 걸 인지시켜주고 응원해주고 방향을 제시해주는 사람이 한명이라도 있다면 나쁜 길로 빠질 수가 없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모든 학생들에게 그러한 존재를 만들어 주고 싶은 것이다.

꿈을 도전하는 과정에서 난관에 부딪힌 일도,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도 있었고 앞으로도 그런 순간이 분명히 올 것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꿈을 담은 이 한 문장을 수없이 반복해서 보고, 듣고, 외쳤기 때문이다.

여러분도 할 수 있다. 첫째로 정말 하고 싶은 꿈을 솔직하게 정하고, 둘째로 꿈을 담은 몇있는 문장을 만들고, 셋째로 다른 사람들이 그 꿈을 알 수 있도록 매일매일 반복한다면 여러분도 언젠가는 반드시 꿈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임은옥 명예기자

독자의 소리

독자의 소리란은 독자 여러분을 위한 공간입니다. 채택된 원고에 대해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부산남구신문편집실 ☎ 607-4077, 4078, 1225honey@korea.kr

산타라 물 따라라

산행을 떠나요



<2019. 10.>

구분	산악회	산행일자(요일)	장소	연락처
대연동	대성산악회	10.13(일)	강진 가우도	010-8665-8359
	약천산악회	10.16(수)	영동 월이산 둘레길	010-4655-4370
	산사랑산악회	10.20(일)	강원도 삼척 두타산	010-2024-2892
	하니로산악회	10.2.(수)	부여 낙화암 고란사	010-3837-6206
용호동	용신산악회	10.13.(일)	창녕 낙동강 개마리길	010-4657-7061
	청산산악회	10.6.(일)	서산 황금산, 해미읍성	010-8008-2087
	산이좋아산악회	10.27.(일)	전남 담양 가마골 단풍	010-9329-3560
	환경산악회	10.6.(일)	대구 송해공원 힐링	010-3575-3448
용당동	용호산악회	10.27.(일)	속리산 문장대	010-9497-4575
	여명산악회	10.6.(일)	울산 대나무 십리길	010-2582-4254
	청심산악회	10.23(목)~27(일)	충국 황과수목포	010-2736-7553
	용마산악회	10.12.(토)~13.(일)	경북 북부	010-2692-1170
감만동	오솔길산악회	10.20.(일)	단양호 둘레길	010-8287-1192
	문현2동산악회	10.13.(일)	속리산 문장대	010-2902-8322
	문사산악회	10.13.(일)	동해청령산	010-8496-8662
	원뿔라산악회	10.20.(일)	거창 금귀산	010-4564-7769
문현동	산누리산악회	10.6.(일)	지리산 둘레길	010-4035-3432
		10.25.(금)	제주 한라산 둘레길	

※ 산악회 회원이 아니더라도 산행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산행 일정은 산악회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우리지역 일자리 알림판

<2019. 9. 27. 기준>

회사명	근무지	모집직종	모집인원	모집기간	임금조건	연락처
아이하나	용호동	매트시공 보조원	2명	19. 9. 27. ~채용시	연봉 24,000,000원	051-622-1056
(주)비전	문현동	건축시공 기술자	1명	19. 9. 27. ~채용시	월급 3,000,000원	051-501-2340
(주)영일(성모병원)	용호동	병원급식조리원	1명	19. 9. 27. ~채용시	월급 1,900,000원	051-933-7454
현대아이어린이집	용당동	유치원 어린이집 조리사(시간제)	1명	19. 9. 27. ~채용시	월급 660,000원	051-627-0075
루체대용호	용호동	영어강사	1명	19. 9. 27. ~채용시	월급 1,800,000원	010-9575-3459
주식회사꼬치나라	문현동	생산보조 및 납품관리원	1명	19. 9. 27. ~채용시	월급 1,800,000원 ~2,000,000원	010-2790-3030
OSS	우암동	용접원	1명	19. 9. 27. ~채용시	연봉 28,800,000원	051-714-6997
조양래동물병원	대연동	병원코디네이터	1명	19. 9. 27. ~채용시	연봉 22,200,000원	051-621-8880
고려재가장기요양	용호동	사회복지사	1명	19. 9. 27. ~채용시	시급 8,350원	010-9630-5619
주식회사 선보비케이원	용호동	제조단순조종사원	1명	19. 9. 27. ~채용시	월급 1,750,000원	051-627-3421

※ 대한민국 모든 일자리 정보(worknet)와 연계
※ 남구 취업정보센터 ☎607-4347 ~8 Fax ☎607-4349

부산남구신문

1996년 1월 1일 창간

발행처 부산광역시 남구

48452 부산광역시 남구 못골로 19(대연동)
남구청 대표전화(051)607-4000 편집실(051)607-4077, 4078

부산광역시 남구 홈페이지 : http://www.bsnnangu.go.kr

인쇄처 부산일보사 / 월간 <비매물>

본지는 신문윤리강령과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 명예기자 칼럼

우리 집은 동네에서 제일 높은 곳에 터 잡고 앉아 있다. ‘어울림 더울랑’의 세계다. 바다가 보이고 하늘 또한 손에 잡힐 듯 가까이 느껴진다. 고추, 상추, 부추, 굴치, 더덕, 돌미나리, 돌나물, 고구마...; 갖은 채소 속에 어? 나팔꽃이 끼어 있네.

불청객

은연중 나팔꽃의 정감이 내게로 흘러와 편안함을 느낀다. 하얗은 잡초 한 포기도 우주에 필요한 존재인데 하물며 꽃과 풀을 인간에게 선사하는 나팔꽃이야 말로 채소들과 동행 할 수 있겠구나 싶은 마음이 든다. 서로가 생명의 향기와 숨결을 들으므로 살아 있음의 행복을 느

낀다. 나 역시 싱그러움을 그들에게서 느끼며 표현하지 못한 속내를 감출 수 없을 뿐 더러 텃밭에서의 느낀 보람과 기쁨을 혼자 묻어 묻어 뒀지 모르게 아쉬움이 남는다. 나팔꽃이 화해의 손을 내밀고 나니 바닥에선 돌미나리와 돌나물이 반항하며 제네들이 최고라는 듯 쪽쪽 잘도 뻗어 나간다. 부추와 고추가 귀찮은 듯 피해 보지만 어느새 줄기 옆까지 바싹 다가왔다. 같은 토질에서 꼭

같이 영양분을 배급 받았는데 왜 나만 작을까? 상추와 곱취가 불평을 해본다.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더니 여러 식물이 같이 자라니 사연도 가지가지 그래봐야 얼마 있지 않을 대지위로 모두가 떨어져 버릴 것을...

그러리라는 걸 아는지 모르는 지 생명의 아픔과 생명의 흔들림이 밝았던 내 마음을 다시금 무겁게 억누른다. 그들 중 일부는 내년 봄 세상 구경을 기억할

수 있지만 일부 더러는 올해로 생명을 마감 하니 슬프고도 안타깝다. 우추 만물이 존재하기 위해서 서로의 생명을 먹이면서 또는 먹여야만 하는가? 그러나 항상 너네들이 있어 우리의 밥상이 푸짐 하구나. 고맙다 작은 것의 소중함을 일깨워줘서 여태 싸우느라 목말라 있을 텐데 내가 수도꼭지 틀어 목 축여 줄게. 물줄기 따라 그들 곁으로 파사로운 햇살이 다가간다.

진정남 명예기자